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Dr. LEE의
논리적
글쓰기

이상혁 지음



“

논리적 글쓰기란

논쟁의 대상인 이슈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

즉, 논지를 논리라는 틀에 집어넣어

글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논지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우리는 일상에서 글을 써야 하는 상황과 늘 마주한다.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장문의 카톡,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주관식 답안, 대학입시를 위한 논술시험, 입학사정관의 눈에 띄기 위한 자기소개서, 채용담당자에게 선택되기 위한 입사지원서, 책임을 줄이기 위한 사유서·탄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등등. 그런데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논리적 글쓰기’를 할 때면, 왜 항상 불편한 마음이 들까?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논리적 글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볼 기회를 한번도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논리적 글쓰기’의 체계적 방법론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뒷담화, 언어, 그리고 사회적 협력”이라는 글을 통해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에게 ‘언어’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제1장에서는 “논리! 설득의 핵심”, “추상적 ‘생각’과 구체적 ‘표현’”, “영어능력의 발전단계”,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 “논리능력의 3가지 측면” 등 논리적 글쓰기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설명하겠다. 제2장에서는 “이해하기”, “브레인스토밍하기”, “개요짜기”, “글쓰기”, “검토하기”라는 논리적 글쓰기의 5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다. 특히, 1970년 뉴욕타임즈에 기고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윤확대이다.”라는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글을 ‘이슈’로 활용하여, 이에 대한 ‘논지Thesis’를 ‘논리Logic’라는 틀에 담은 ‘논리적 글쓰기’를 직접 해보겠다.

다음으로, 앞서 완성된 글을 구체적 예시로 활용하여 논리적 글쓰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에, 제3장에서는 “5-문단 에세이”, “제목과 연결어”, “서론”, “본론”, “결론”을 중심으로 논리적 글쓰기에 필요한 ‘형식’을 분석하겠다. 이에 더해, 제4장에서는 “논리적 흐름”, “연관성 평가”, “논증성 평가”, “균형성 평가”, “‘더와 덜’의 게임”을 중심으로 논리적 글쓰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특히, 자신의 ‘논지’를 ‘논리’라는 틀에 집어넣는 도구인 3가지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 이후, 제5장에서는 “주관성”, “일관성”, “정확성”, “독창성”, “간결성”과 관련한 5가지 질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쓴 글을 ‘올바른 방향’으로 좀더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다.

제6장에서는 “무격, 격, 그리고 파격”, “면접”, “단락을 활용

한 논리적 글쓰기”, “논문쓰기”, “책쓰기”를 통해 지금까지 설명한 논리적 글쓰기의 기본 틀과 형식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논문쓰기와 책쓰기의 경우 필자의 줄거를 구체적 예시로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제7장에서는 “개념정의”, “논쟁(충돌하는 의견)”, “(각 의견의) 근거”, “나의 의견”, “나의 근거”를 중심으로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논증 훈련의 5단계가 무엇인지 구체적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다. 끝으로, “논증과 논리적 오류”라는 글을 통해 논리적 글쓰기의 본질에 비추어 ‘올바른 방향’으로 한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향후 학습 방향을 권고하겠다.

요컨대, ‘논리적 글쓰기’란 논쟁의 대상인 ‘이슈’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 즉, ‘논지’를 ‘논리’라는 틀에 집어넣어 ‘글’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논지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언어능력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논리란 문단과 단락을 조합하는 규칙이다. 심지어 모국어의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언어습득이 아니라 인위적인 언어학습을 통해서만 문단과 단락 차원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결국, 필자가 제안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논리적 글쓰기’의 체계적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확한 ‘이해’와 끈질긴 ‘연습’을 통해 이 책에 제시된 논리적 글쓰기의 ‘격식格式’을 충분히 익혀라. 그리고 오직 본질에만 충실하되, ‘파격破格’하여 자유롭게 쓰라.

7 Liberal Arts

Trivium

Grammar
Logic
Rhetoric

Quadrivium

Arithmetic
Astronomy
Music
Geometry

이 책은 ‘자유 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자가 설립한 연구 공간 자유의 두 번째 연구결과물이다. 과연 ‘논리적 글쓰기’와 ‘자유’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서양 사회에서는 이상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7가지 기본과목 즉, ‘인간을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7가지 기술’을 가르쳤다.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3가지 과목 *Trivium*이 문법 *Grammar*, 논리 *Logic*, 수사학 *Rhetoric*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논리적 글쓰기’의 이론적 토대가 바로 이 3가지 과목이다. 독자 여러분 모두가 이 책을 통해 얻게 될 훌륭한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21세기의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1년 6월 연구공간 자유에서
(www.TheInstituteForLiberty.com)

이상혁

뒷담화, 언어, 그리고 사회적 협력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 혹은 ‘유일한 말하는 동물’이라는 인간의 특징을 반영하여 ‘호모 로퀼렌스’ 즉, ‘언어적 인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¹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말 또는 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다.² 물론 동물도 의사소통을 한다. 예컨대, 개는 큰소리로 짖고, 벌은 떼지어 춤을 추고, 원숭이는 서로의 털을 만지며, 개미는 페로몬을 분비함으로써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한다.³ 특히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의사소통이 분명히 발견된다. 그럼

1. See Dennis Fry, *Homo Loquens: Man as a Talking Animal*, 1st Edi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2. The term ‘Language’ refers to “the method of human communication, either spoken or written”. Cambridge Dictionary.

3. “Animal Communication”, Khan Academy, <https://www.khanacademy.org/science/biology/behavioral-biology/animal-behavior/a/animal-communication>, accessed June 2021.

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단순한 의사소통과 인간의 언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히브리대학교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2015년에 발표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인해 일약 세계적 석학의 반열에 올랐다. 이 책에 언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언어가 Gossiping 즉, ‘뒷담화’⁴의 수단으로 진화했다.”⁵라고 주장한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소위 ‘던바의 법칙’⁶으로 유명한 옥스퍼드대학교의 로빈 던바 교수가 1996년에 발표한 『그루밍, 뒷담화, 그리고 언어의 진화』라는 책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문화인류학자이자 진화심리학자인 로빈 던바는 사회적 그루밍으로부터 인간의 언어가 진화했으며, 그러한 언어 진화의 한 단계가 인간의 뒷담화라고 설명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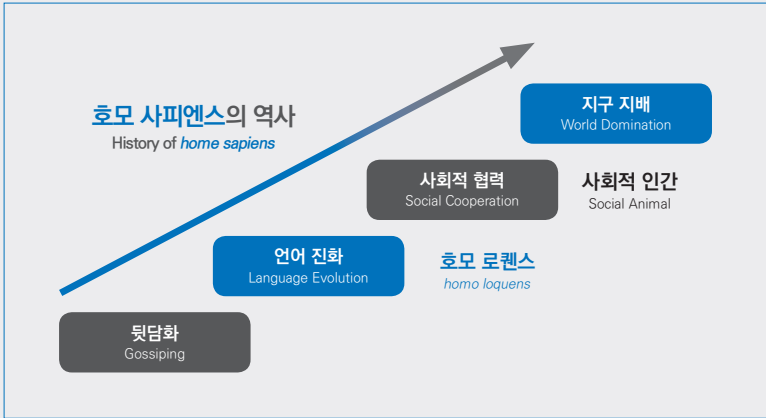
뒷담화가 인간의 언어를 진화시켰다는 로빈 던바의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발 하라리는 언어의 진화 때문에 비로소 인간

4. Gossiping이라는 단어는 ‘소문내기’, ‘험담하기’, ‘남의 얘기 좋아하기’ 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으나, 이 책에서는 편의상 ‘뒷담화’라고 표현하겠다.

5. Yuval Noah Harari,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New York, NY: Harper Collins, 2015), pp. 438-442.

6. ‘던바의 법칙’(Dunbar’s Number)이란 진정한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는 인맥의 최대치는 150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See Maria Konnikova, “The Limits of Friendship”, *The New Yorker* (October 7, 2014), <https://www.newyorker.com/science/maria-konnikova/social-media-affect-math-dunbar-number-friendships>, accessed June 2021.

7. See Robin Dunbar, *Grooming, Gossip and the Evolution of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도표-01.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

의 ‘사회적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즉,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사회적 협력을 실천하는 ‘사회적 동물’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언어라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전달되고 공유된 생각, 감정, 정보 등을 기반으로 더 큰 사회적 협력을 실현한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지구의 지배자’ 혹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요컨대, [도표-01]과 같이, ‘뒷담화 → 언어 진화 → 사회적 협력 → 지구 지배’라는 일련의 현상이 오늘날 인류의 역사 즉,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에 벌어졌다는 것이다.⁸

우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신라 제48대 경문왕에 대

8. Yuval Noah Harari, “Why Humans Run the World”, TED (Nov. 9, 2017), <https://www.youtube.com/watch?v=LLucUmQVBAE>, accessed June 2021.

한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미다스왕⁹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도 있는 것을 보면, 뒷담화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공통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지구 지배’라는 거창한 담론은 제외하고서라도, 최소한 ‘뒷담화 → 언어 진화 → 사회적 협력’이라는 주장의 진위 여부는 쉽게 검증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무리지어 선생님, 연예인, 친구 등에 대한 뒷담화로 웃고 떠들면서 ‘우정’이라는 사회적 협력·연대를 형성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라.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집·식당에 모여 앉아 상사에 대한 이런저런 뒷담화로 깔깔대고 즐거워하며 ‘동료의식’이라는 사회적 협력·연대를 형성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라.

결론적으로, 뒷담화라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동물의 의사소통과는 전혀 다른 언어라는 독특한 의사소통 수단을 오로지 인간만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로켄스 즉, 언어적 인간이 되었다. 인간의 언어는 타인과의 사회적 협력을 가능하게 했고, 이로써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인간이 누리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언어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책의 주제는 ‘논리적 글쓰기’이다. 다만, 말하기와 달리 글쓰기는 단순한 뒷담화를 넘어

9. “King Midas: The Donkey Ears”, *Greek Myths*, <http://greece.mrdonn.org/greekgods/kingmidas2.html>, accessed June 2021.

일정 수준의 정확한 '이해'와 끈질긴 '연습'을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들어가며 _ 7

뒷담화, 언어, 그리고 사회적 협력 _ 11



제1장 논리적 글쓰기의 기초

- 1.1. 논리! 설득의 핵심 _ 21
- 1.2. 추상적 '생각'과 구체적 '표현' _ 25
- 1.3. 영어능력의 발전단계 _ 31
- 1.4.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 _ 35
- 1.5. 논리능력의 3가지 측면 _ 41



제2장 논리적 글쓰기의 5단계

- 2.1. 이해하기 _ 49
- 2.2. 브레인스토밍하기 _ 57
- 2.3. 개요짜기 _ 63
- 2.4. 글쓰기 _ 69
- 2.5. 검토하기 _ 77



제3장 논리적 글쓰기의 형식

- 3.1. 5-문단 에세이 _ 87
- 3.2. 제목과 연결어 _ 93
- 3.3. 서론 _ 101
- 3.4. 본론 _ 105
- 3.5. 결론 _ 109



제4장 논리적 글쓰기의 본질

- 4.1. 논리적 흐름 _ 117
- 4.2. 연관성 평가 _ 123
- 4.3. 논증성 평가 _ 129
- 4.4. 균형성 평가 _ 135
- 4.5. '더와 덜'의 게임 _ 141



제5장 더 좋은 평가를 위한 5가지 질문

- 5.1. 얼마나 주관적인가? _ 149
- 5.2. 얼마나 일관적인가? _ 155
- 5.3. 얼마나 정확한가? _ 161
- 5.4. 얼마나 독창적인가? _ 167
- 5.5. 얼마나 간결한가? _ 173



제6장 논리적 글쓰기의 응용

- 6.1. 무격, 격, 그리고 파격 _ 183
- 6.2. 편집 _ 187
- 6.3. 단락을 활용한 논리적 글쓰기 _ 195
- 6.4. 논문쓰기 _ 203
- 6.5. 책쓰기 _ 211



제7장 논증 훈련의 5단계

- 7.1. 개념정의 _ 219
- 7.2. 논쟁 (충돌하는 의견) _ 225
- 7.3. (각 의견의) 근거 _ 231
- 7.4. 나의 의견 _ 237
- 7.5. 나의 근거 _ 241



논증과 논리적 오류 _ 247
 맺으며 _ 253

주요 용어 _ 258
 도표, 예시, 지문 _ 264
 참고 문헌 _ 268

제1장

논리적 글쓰기의 기초





- 1.1. 논리! 설득의 핵심
- 1.2. 추상적 '생각'과 구체적 '표현'
- 1.3. 영어능력의 발전단계
- 1.4.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
- 1.5. 논리능력의 3가지 측면

1.1. 논리! 설득의 핵심

인간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생각, 감정 혹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유한다. 더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내고, 그로 인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조직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인간의 언어 활동이 설득이다. 한자어 ‘말씀 설說’과 ‘얻을 득得’을 어원으로 하는 한국어 ‘설득’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편이 이쪽 편을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¹⁰이다. 좀더 한자어의 뜻을 살려서 풀이하면, ‘말로써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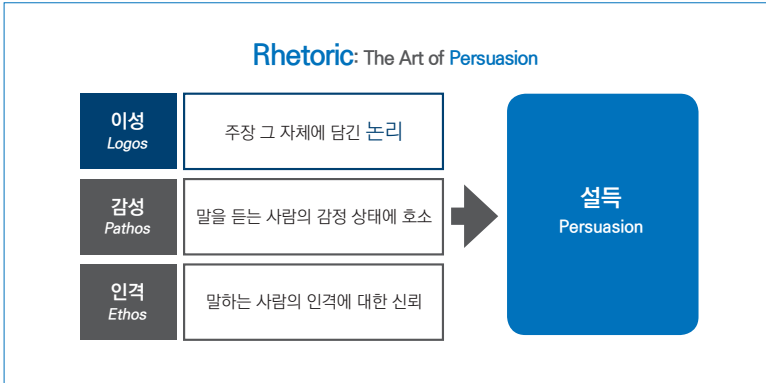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으로서 당나라 빈공과(賓貢科)에 장원 급제했던 최치원(崔致遠)이 881년에 지은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이 설득의 역사적 사례 중 하나이다. 당나라 말기 875년 황소(黃巢)를 중심으로 농민반란이 일어나 10년 간 지속되었다. 반란 토벌의 책임을 맡은 절도사 고병(高駘)의 종사관 최치원이 황소를 꾸짖는 격문(檄文)¹¹을 썼는데, 이것이 『계원필경(桂苑筆耕)』에 <격황소서(檄黃巢書)>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황소가 이것을 읽다가 놀라 침상에서 떨어졌다는 설이 있지만, 이는 과장된 이야기로 평가된다. 결국 최치원의 격문은 황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뛰어난 글솜씨 덕분에, 최치원은 자신의 이름을 당나라 전역에 날렸고 이후 신라로 귀국해 벼슬을 얻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9세기 중국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최치원의 설득 방법 즉, <토황소격문>의 글쓰기 형식을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활용해도 괜찮을까? 전혀 아니다. 비록 ‘내용’ 혹은 ‘생각’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의미가 있지만, ‘형식’ 혹은 ‘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¹²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적 표준 Global Standard’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득 특히, ‘논리적 글쓰기’는 서구 사회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형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결

11. 격문이란 “비상사태에 관하여 널리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의분을 고취하려고 쓴 글”을 일컫는다. “격문”,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4690&cid=40942&categoryId=33495>, accessed June 2021.

12. 자세한 내용은 “1.2. 추상적 ‘생각’과 구체적 ‘표현’” 참고.



[도표-02.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설득의 3가지 방법]

국, 사용하는 언어에 관계없이 글쓰기의 형식Format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예컨대, 설득의 대표적인 사례인 ‘논문Thesis, Dissertation, Paper’의 경우, 영어로 쓰든 한국어로 쓰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글쓰기 형식을 따른다.

한편, ‘설득’에 대응하는 영어 ‘Persuasion’의 의미는 무엇일까? Persuasion의 동사인 ‘Persuade’는 “특별히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또는 믿도록 하기” 혹은 “논증을 통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기”라고 정의된다.¹³ 한국어 ‘설득’의 정의와 달리, ‘왜Why?’라는 이유 설명 혹은 ‘논증Reasoning’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다. 논증이란 문자 그대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즉, ‘이성Reason

13. The term ‘persuade’ refers to “to cause people to do or believe something, esp. by explaining why they should” or “to cause someone to do something through reasoning”. (Underline added) Cambridge Dictionary and 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ies.

사용하기’ 혹은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Reason 말하기’라는 말로서, “무엇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뜻한다.¹⁴ 결국 논리적 증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설득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세계적 표준으로 활용되는 설득의 출발이자 핵심이 논리Logic¹⁵이다. 물론 논리가 설득의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¹⁶이라는 책을 통해, 설득을 위한 기술적 방법 3가지를 [도표-02]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이성’ 즉, ‘주장 그 자체에 담긴 논리’로 설득하는 방법이다. 둘째, ‘감성’ 즉,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호소’함으로써 설득하는 방법이다. 셋째, ‘인격’ 즉, ‘말하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설득하는 방법이다. 다만,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득의 방법이 독자의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임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글쓰기’와 ‘논리’에 초점을 두어, 이 책의 제목을 『Dr. LEE의 논리적 글쓰기』로 정했다.

14. The term ‘reasoning’ refers to “the action of thinking about something in a logical way”. 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ies.

15. 이 책이 ‘논리’ 혹은 ‘논리학’의 전반을 다루지는 않는다. 오로지 ‘논리적 글쓰기’에 필요한 논리의 개념만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논리적 글쓰기의 체계적 방법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한다.’라는 이 책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다.

16. Aristotle, *Rhetoric* (350 B.C.E), translated by W. Rhys Roberts, <http://classics.mit.edu/Aristotle/rhetoric.html>, accessed Jun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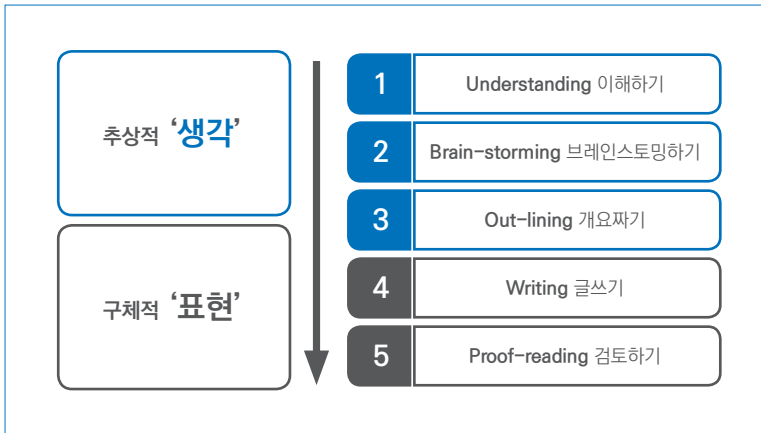
1.2. 추상적 ‘생각’과 구체적 ‘표현’

논리적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추상적 ‘생각’과 구체적 ‘표현’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논리적 글쓰기의 5단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1) 이해하기, (2) 브레인스토밍하기, (3) 개요짜기의 경우 반드시 추상적 ‘생각’으로 그리고 (4) 글쓰기와 (5) 검토하기는 반드시 구체적 ‘표현’으로 각각 구별해서 작업해야만 논리적 글쓰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처럼,¹⁷ 생각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잘 드러난 것처럼,¹⁸ 인간은 늘

17. 원래 정확한 표현은 “*dubito, ergo cogito, ergo sum*” (I doubt. Therefore, I think. Therefore, I am.) 즉,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이다. See Rene Descartes, *Principles of Philosophy*, originally published in Latin in 1644 & translated into English by John Veitch (SMK Books, 2018).

18. See Auguste Rodin, “The Thinker” (1902), Musee Rodin, <http://www.musee-rodin.fr/en/collections/sculptures/thinker>, accessed June 2021.

생각하는 존재이다. 심지어 인간이 하루 평균 약 70,000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뇌과학자들의 주장도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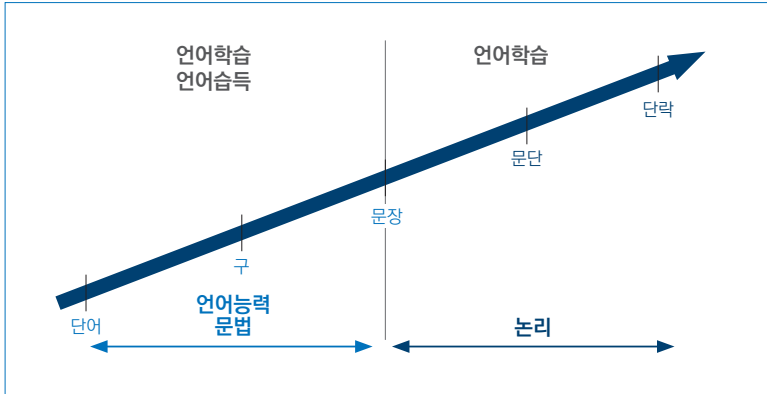


[도표-03. 추상적 '생각'과 구체적 '표현']

인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추상적 '생각Idea' 중 지극히 일부만을 언어라는 구체적 '표현Expression'의 형식으로 외부에 드러낸다. [도표-04]와 같이, 언어능력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구체적 '표현'의 형식은 단어, 구, 문장, 문단, 단락이라는 5단계로 구분된다. 예컨대, 아침 밥을 굶고 학교에 갔던 아이가 점심 때쯤 집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도 이 아이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바라는 추상적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이다. 그 생각을 ㄱ, :(, :-(<, :-<, ☹ 등의 기호로 표현해 볼 수

19. The Neurocritic, "What Is Thought?" (June 30, 2017), <http://neurocritic.blogspot.com/2017/06/what-is-thought.html>, accessed June 2021.

도 있다. 만약 이 아이가 아직 웅얼이밖에 못하는 갓난아기라면 자신의 추상적 ‘생각’을 언어라는 틀에 집어넣지 못한 채 그저 칭얼대며 울음을 터트리는 방법으로 표현할 것이다.



[도표-04. 언어능력의 발전단계]

정상적인 인간은 [도표-04]와 같은 언어능력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 높은 차원의 구체적 ‘표현’으로 자신의 추상적 ‘생각’을 타인에게(예컨대, ‘엄마에게’) 전달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예컨대, ‘밥’)을 얻어낸다.²⁰ 먼저, 웅얼이밖에 못하던 갓난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신의 추상적 ‘생각’을 단어Word라는 구체적 ‘표현’의 형식에 담아 전달한다. 예컨대, 엄마를 마주한 아이가 큰 소리로 “밥!”, “배고파!”, “Cake!”, “Hungry!” 등과 같이 표현한다. 이

20. “말로써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설득이다. 자세한 내용은 “1.1. 논리 설득의 핵심” 참고.

후, 이 아이는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하나의 구^{Phrase}라는 구체적인 ‘표현’의 형식을 만들어 자신의 추상적 ‘생각’을 전달한다. 예컨대, 어느 순간 아이가 “맛있는 밥!”, “무지무지 배고파!”, “A piece of cake!”, “Really Hungry!” 등과 같이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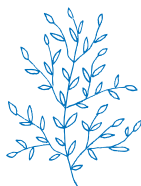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 아이는 단어와 단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하여 문장^{Sentence}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의 형식을 만들어 내고, 동일한 자신의 추상적 ‘생각’을 그 형식에 담아 전달한다. 예컨대, “어머니, 따뜻한 밥 한끼 지어주십시오!”, “Please, give me a piece of cake!” 등과 같이 표현한다. 모국어의 경우 누구나 ‘단어 → 구 → 문장’이라는 언어능력의 발전단계를 경험한다. 즉, 인간은 특정 언어사회에 일정 기간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규칙을 습득하는데, 이것을 언어습득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언어능력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외국어의 경우 문법을 인위적으로 배우는 언어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문장 차원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²¹

이후, 좀더 수준이 높아진 아이는 문장과 문장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한 문단^{Paragraph}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더욱더 수준이 높아진 아이는 문단과 문단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한 단락^{Passage}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의 형식을 활용하

21. 논문 즉, Thesis, Dissertation, Paper 등과 같이 영어로 ‘논리적 글쓰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어에 초점을 맞추어 “1.3. 언어능력의 발전단계”를 별도로 다룬다. 한편, 논문 관련 자세한 내용은 “6.4. 논문쓰기” 참고.

여 자신의 추상적 ‘생각’을 전달한다.²² 이때 문단과 단락을 조합하는 규칙이 논리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심지어 모국어의 경우에도 결코 자연스러운 언어습득이 아니라 반드시 인위적인 언어학습을 통해서만 문단과 단락 차원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단과 단락을 활용한 ‘논리적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글쓰기의 반복이 아니라 ‘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끈질긴 ‘연습’이 필요하다.

22. 문단과 단락을 활용한 구체적 ‘표현’이 ‘논리적 글쓰기’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는 이 책 전반을 통해 다루어진다.



“ 심지어 모국어의 경우에도
결코 자연스러운 언어습득이 아니라
반드시 인위적인 언어습득을 통해서만
문단과 단락 차원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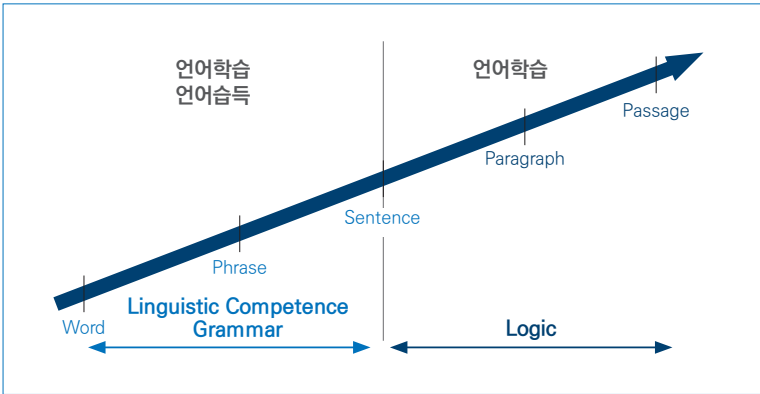


1.3. 영어능력의 발전단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는 한국어를 잘한다. 신간 소설을 읽고, 아침 뉴스를 듣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등 한국어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큰 어려움 없이 멋지게 보낸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한국어로 ‘논리적 글쓰기’ 또한 잘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논리적 글쓰기’를 잘하려면 한국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단어 → 구 → 문장’ 차원의 한국어능력을 넘어서, 인위적인 학습을 통해 ‘문장 → 문단 → 단락’ 차원의 한국어능력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²³ 이렇듯 일상에서 말하는 “한국어를 잘한다.”와 논리적 글쓰기에서 말하는 “한국어를 잘한다.”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23. 자세한 내용은 “1.2. 추상적 ‘생각’과 구체적 ‘표현’” 참고.

마찬가지로, 보통의 한국 사람들끼리 흔히 말하는 “영어를 잘 한다.”와 영어를 활용해 Thesis, Dissertation, Paper 등과 같은 논리적 글쓰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를 잘한다.’는 엄격하게 구별된다.²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인과 달리 보통의 한국인은 Word와 Word를 조합해서 Sentence 차원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에서 만점 혹은 1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에도 영어로 Sentence를 능숙하게 만들어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²⁵ 따라서 평범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어로 Sentence를 만들어서 의사소통만 할 수 있어도 “와! 영어 잘한다!”



[도표-05. 영어능력의 발전단계]

24. 이러한 구별을 위해 필자는 이전 출저에서 전자를 영어로 후자를 작은따옴표를 붙인 ‘영어’로 각각 달리 표현했다. 이상혁, 『Dr. LEE의 ‘영어’로 대학가기』 (서울: KP Publisher, 2010) 참고.

25. 사실 이 부분이 소위 ‘수능 영어’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영어공부 10년 넘게 했는데, 외국인과 만나면 한마디도 못한다.”라는 일반 시민들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이에 필자는 ‘학교 영어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과감한 방향전환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혁, 『Dr. LEE의 똑똑영어: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실천하는 영어 공부』 (서울: 연암사, 2021) 참고.

라고 감탄하는 것이다.

Sentence 차원의 영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가 표준화된 영어공인시험이다. 예컨대, 취업 준비생이 주로 응시하는 TOEIC²⁶의 경우 Sentence 차원에서 읽고, 들을 수만 있으면 900-990점을 받는다. 수능 영어 1등급 학생이 TOEIC에 응시할 경우 일반적으로 750-850점밖에 못 받는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78%인 한국인 응시자의 2017년 평균 점수는 676점이었다.²⁷ 영어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TOEFL²⁸의 경우 Sentence 차원에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으면 각 영역별로 25-26점, 총점 100-105점을 받는다. 미국의 주요 명문대학의 경우 100점을 그리고 일부 최상위권 로스쿨^{Law School}, 비즈니스스쿨^{Business School} 등에서는 105점을 요구한다.

Sentence를 넘어 Paragraph와 Passage 차원의 영어능력을 검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Thesis, Dissertation, Paper 등과 같은 논리적 글쓰기이다. 대부분의 미국 명문 대학·대학원 입학의 경우 필수로 제출된 Essay를 통해 Paragraph와 Passage 차원의 논리능력을 평가한다. 한편, TOEIC은 Paragraph와 Passage 차원의 영어능력을 검증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TOEFL은 Paragraph

26.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의 줄임말.

27. ETS, "2017 Report on Test Takers Worldwide" (2018), <https://www.ets.org/s/toeic/pdf/2017-report-on-test-takers-worldwide.pdf>, accessed June 2021.

28.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줄임말.

와 Passage 차원의 검증을 시도한다. Paragraph 차원에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면 각 영역별로 27-28점을 그리고 Passage 차원에서 가능하면 29-30점을 받는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TOEFL 점수의 객관성 및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²⁹

이에, 미국의 명문 대학·대학원은 TOEFL 100-105점으로 Sentence 차원의 영어 능력을 검증받은 외국 학생뿐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모든 미국 학생에게도 SAT, GRE, LSAT, GMAT 등의 점수를 요구한다.³⁰ 이들 시험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학업능력 즉, 논리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Essay 또한 Paragraph와 Passage 차원의 의사소통능력 즉, 논리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요컨대, 영어능력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논리적 글쓰기에 필요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생각’을 (Sentence를 넘어) Paragraph와 Passage 차원의 구체적 ‘표현’으로 만들어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9.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몇몇 미국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TOEFL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SAT 혹은 Essay를 통해서도 학생의 영어능력을 충분히 혹은 TOEFL보다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하버드대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See Harvard University, "International Applicants", <https://college.harvard.edu/admissions/application-process/international-applicants>, accessed June 2021.

30. SAT란 대학 학부 과정 입학에 위한 'Scholastic Assessment Test' 혹은 'Scholastic Aptitude Test', GRE란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입학에 위한 'Graduate Record Examination', LSAT란 로스쿨 입학에 위한 'Law School Admission Test', GMAT이란 비즈니스스쿨 입학에 위한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의 줄임말이다.

1.4.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



평소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투수 박찬호 선수의 별명이 ‘코리안특급’에서 ‘투머치토키’ 즉, ‘TMT’³¹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TMT라는 신조어도 낫설었는데, 최근에는 ‘TMI’라는 새로운 표현도 자주 접하게 된다. TMI란 “달갑지 않은 정보 혹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경우”³²를 일컫는데,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가 생산되고³³ 그러한 정보에 무분별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노출되는

31. ‘TMT’ 즉 ‘Too Much Talker’라는 표현은 미국인이 쓰지 않는 소위 ‘Konglish’이다. 물론 ‘Konglish’라는 표현도 ‘Konglish’이기에 영어로 표현하자면 ‘broken English’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Too Much Talker”를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He talks too much.”, “He is too talkative.”, “He is a chatterbox.” 등이 될 것이다.

32. ‘TMI’ 즉,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영어권 SNS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한국의 경우 TMT라는 표현과 함께 2017년 이후 사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참고.

33. 2018년 현재 매일 2.5 quintillion 바이트의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Quintillion은 100경, 즉 10의 18승이다. 2016~2018년 단 2년 간 생산된 정보가 태초부터 2018년까지 인류가 생산해 낸 총 정보의 90%를 차지한다. 향후 정보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ee Bernard Marr, “How Much Data Do We Create Every Day? The Mind-Blowing Stats Everyone Should Read”, *FORBES* (May 21, 2018),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8/05/21/how-much-data-do-we-create-every-day-the-mind-blowing-stats-everyone-should-read/#5b94ab4260ba>, accessed June 2021.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이다. 한편, 논리적 글쓰기에 있어 수많은 정보는 양날의 칼과 같다.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정보를 논리적 글쓰기에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을 철저히 구분하라. 의견이란 “어떤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한 자기 나름의 판단”을 일컫는다.³⁴ 의견은 그저 자신만의 생각일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는 의견의 충돌 즉,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반해, 사실이란 “실제 있는 혹은 있었던 일”³⁵ 혹은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고 증거에 의해 참으로 증명될 수 있는 어떤 것”³⁶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는 이미 벌어졌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진술이다. 이에 반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주관적 ‘의견’을 전달하는 진술이다.

둘째, 주관적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왜(Why)?’라는 질문을 던져라. 예컨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3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편, 영어 ‘Opinion’은 “무엇 혹은 누군가에 대한 생각 혹은 믿음”(a thought or belief about something or someone)을 의미한다. Cambridge Dictionary.

3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편, 영어 ‘Fact’는 “이미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혹은 현재 존재하는 그 무엇, 특히 증거가 있거나 혹은 관련 정보가 있는 그 무엇”(something that is known to have happened or to exist, especially something for which proof exists, or about which there is information)을 의미한다. Cambridge Dictionary.

36. “Fact”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Fact>, accessed June 2021.